



가톨릭마산

사순 제5주일

2024년 3월 17일

제2609호



가시 면류관과 십자가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예레 31,31-34
 화 답 송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제 2 독 서 히브 5,7-9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 복 음 요한 12,20-33
 영 성 체 송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주인 마태오 신부
장승포본당 주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밀알의 삶을 살아간다면 동경과 상실감에 허기졌던 목소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밀알이 되어 줍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밀”은 인간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주요 양식이 됩니다. “밀”은 먹혀야 하는 존재입니다. 먹혀 주면서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해 죽음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하여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허기진 영혼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더불어 죽음으로 점철되는 세상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만이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몸소 보여 주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은 너무 급변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우선시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각 본당 공동체는 과거에 대한 동경과 상실감에 대한 내적, 외적 허기짐에 아우성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당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죽기 위해 걸음을 옮기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감상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순 시기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고 배불려 주길 바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인류구원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특히 우리 신앙공동체를 위해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 16,25)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밀알의 삶을 살아간다면 동경과 상실감에 허기졌던 목소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죽음의 밀알이 되길 바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밀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교회의 2024년 춘계 정기총회 결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3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서울 종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춘계 정기총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124위 복자 시복 10주년을 맞아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성을 기원하는 담화문을 시복 기념일인 2024년 8월 16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 명의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2. 최양업 토마스 사제의 선종일인 6월 15일을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을 위한 전구 기도의 날’로 정하였으며, 이날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3. 한국 주교단의 사도좌 정기방문[2024년 9월 16일(월)~21일(토)]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사도좌 정기방문은 사도들의 묘소 참배, 교황님 알현, 교황청 국무원을 비롯한 10여 개 부서 방문, 로마 한인공동체 미사, 성지 순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4.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본 대회는 서울대교구(지역조직위원회, LOC)에서 맡아 준비하고,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종강 주교가 교구 대회(Days in Dioceses) 준비 책임자가 되어 교구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다.
5. 한국 천주교회의 세월호 참사 10주기 연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담화문을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명의로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주관하여 위원장 김선태 주교의 주례로 4월 15일(월)에 세월호 참사 10주기 미사를 봉헌하기로 하였다. 한편, 4월 16일(화) 각 교구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미사를 봉헌하고, 10주기 행사는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6.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의 회칙(개정)을 승인하였다.
7.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청소년사목위원회에서 마련한 다음의 2024년 주교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주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로 하였다.
 - 새만금 갯벌(해창, 수라 갯벌) 방문(2024년 4월 30일)
 -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방문(날짜 미정)
8. 주교회의 2024년 춘계 정기총회로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이철수 스테파노 신부(수원교구, 1990년 사제 수품)의 사무총장 연임(주교회의 2027년 춘계 정기총회까지 3년 임기)을 승인하였다.



사순절에 듣는 예수님의 기도

배진구 베드로 신부/ 성사전담

우리 딛고 사는 땅 흔들릴세라
십자가 뿌리 깊이 내리고
희망 두고 사는 하늘 진노할세라
가시관 머리 숙여 속죄합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당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왔기에
어찌 당신 뜻
헤아릴 수 없겠습니까만
왜? 하필이면
사형수의 침상인 십자가이옵니까?

제가 목청 높여 산울림의 메아리로
저들에게 들려준 것은
하늘나라 위한
사랑 용서 하나 됨이온데 저들은
마음 멀리 비웃음의 손가락질로
골고타 그 언덕 위에
저의 십자가를 밀어 세웠습니다.

뼈를 뚫는 망치소리에
요르단 강가에서 들었던 소리도
타볼산 위에서 들었던 음성도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잔을 멀리하여 주십시오” 하고
청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하오나 아버지시여!
알고 있습니다. 당신 뜻
다시 헤아립니다.
모든 연약한 인간 조건 뒤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라고
저를 내려놓습니다. 아니
십자가 위에 저를 덩그렇게 올려놓습니다.

약속된 부활의 새날을 위해!
아버지의 더 큰 영광을 위해!



감사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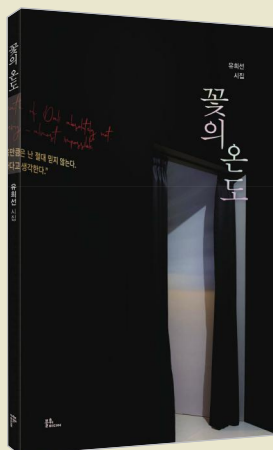
이영자 켜마 시인/ 가톨릭문인회

여뀌풀 들성들성 시냇가의 팬 아랫물에
풀꽃 같은 새댁 숨어하는 빨래는
젖먹이의 기저귀 아닌 시어머니 병수발 기저귀
저인 분명 천사야-

징검다리 건너는 사람들마다 칭찬하고
그 정성 아랑곳없이 시어머니 돌아가시니
물려받은 종가 살림 새 종부에 무겁다
무거운 짐 진 자 나에게 오라
다정한 주님 목소리에 귀 열리니

믿음의 열매 사랑의 축복 비할 데 없네
은총 입은 김 마리아 고령으로 기진한 몸
요양병원 침상에서 흐릿한 기억 속에
덧없는 인생사 목 메이는 아픈 날들
누가 알겠노 누가 알겠노 되풀이하는 잠꼬대
안다 안다 마리아야 너의 선행 내가 안다-

등불 들고 마중 나온 하느님 따라
지난해 새언니 하늘로 가고
사순절 영혼의 트랙에서
딸처럼 길러준 시누이 감사편지 띄우나니
행여 오르려나 하늘나라에



가톨릭문인회원

유희선 시집 『꽃의 온도』

유희선의 시는 감각적이며 표현적이다. 특히 시적 발화가 회화에서 일어날 때 파생된다. 행간 사이로 회화적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미지가 움직인다는 것은 사물의 정태적 외연을 넘어서려는 또 하나의 몸짓이다. 그림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시선으로 도달하려는 낯선 메시지 전달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대답이다. 그 기저에 그의 신앙이 있다.

-고영조 시인의 표사 중-

기억할 선종 사제



김차규(필립보) 신부
2020년 3월 19일

故김차규 필립보 신부 4주기 추모미사

일시: 3월 19일(화) 10:30
장소: 칠원성당

교구장 서리 동정

사제총회

일시: 3월 19일(화)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체나콜로피정 강의 및 미사

일시: 3월 23일(토) 11:00
장소: 교구청

교구 사목 방문

일시: 3월 21일(목)
본당: 하대동/ 가좌동/ 문산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3월 20일(수)
본당: 수산/ 용잠/ 진례
일시: 3월 21일(목)
본당: 고현

본당 재정업무 지도방문

일시: 3월 20일(수)
본당: 남지/ 대산
일시: 3월 21일(목)
본당: 용원/ 덕산동

교구/본당

사제총회

일시: 3월 19일(화)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청소년국 신앙강좌 1

일시: 3월 24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및 월례미사

일시: 3월 21일(목) 13:30
장소: 교구청

가톨릭문인회 피정

일시: 3월 23일(토) 10:00
장소: 교구청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3월 기도모임(일일피정)

일시: 3월 23일(토) 10:00~16:00
장소: 교구청 1층 대회의실/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전세버스운행노선: 가음자이(08:00)-반송(08:10)-시티(08:16)-
현대주유소(08:26)-구 교구청(08:50)-교구청(09:20)
문의: 회장 010-9399-5454/ *점심-김밥제공(무료)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추가 모집

추가모집: 3월 31일(주일)까지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한티 가는 길(도보순례)

일시: 1차-3월 21일~23일, 2차-4월 10일~12일
3차-5월 6일~8일, 4차-6월 6일~8일
5차-9월 25일~27일, 6차-10월 10일~12일
7차-11월 25일~27일
장소: 왜관수도원 피정의집/ 연화리 피정의집(3차, 6차)
참가비: 25만 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건강한 가족 공동체 부모교육

일시: 4월 7일(주일)부터 8주간, 매 주일 10:00~11:30
장소: 젊음의집/ 대상: 개인 및 주일학교 자모회
문의: 젊음의집 055-255-8295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일시: 4월 16일(화)~17일(수) 09:00~17:00
장소: 창원파티마병원 파티마 홀(5층 강당)
수강료: 4만 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및 문의: 055-270-1648/ 1650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이수증 발급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하루 무료 피정

일시: 4월 13일(토)/ 5월 11일(토)
(10:00~15:00 / 14:00 미사)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무료 피정 예정
장소: 부산가톨릭센터(051-462-1870)
강사: 권민자 수녀
신청 및 문의: 010-4837-75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 피정 접수 중)
일시: 4월 16일~18일/ 4월 20일~22일/ 4월 24일~26일/ 4월
28일~5월 1일(추차도)/ 5월 2일~4일/ 5월 6일~8일/
5월 17일~19일/ 5월 22일~24일/ 5월 26일~29일(추)
문의 및 접수: 02-773-1455, 064-796-4182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3월 18일(월) 19:00	중앙동성당	자비의 주님	하용수 요한(성모올타리 원장)	임성섭 유스티노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제주, 전국 167곳,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제주, 전국 167곳 2박 3일-36만 원
베트남, 마카오, 북해도, 아키타, 도쿄,
오사카 각 3박 4일-120만 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화성남 18길 2, 1층(화성동)
김종운(클레멘스)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50ml (20ml 15ml)
힐데 스킨 100ml
힐데 바누 85g
힐데 샴푸 200ml
힐데 금잔 크림 120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도(추차도) 매주 출발
4월 22일(월)~24일(수) 전주·광주대교구 3일
■해외 성지순례 모집
5월 13일(월)~16일(목) 일본 나가사키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 양태현 그레고리오 신부 모친 선종

양태현 신부(중동본당 주임)의 모친 이민자(세레나)님께서 3월 6일(수) 선종하여 3월 9일(토)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장승포본당 제22대 사목협의회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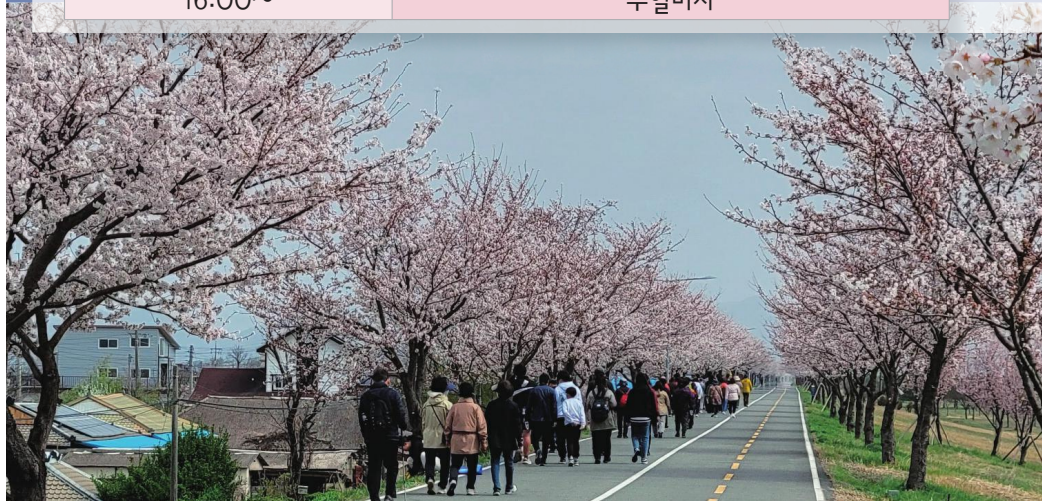
회장: 이중호(안드레아)
 부회장(남): 이기형(베드로)
 부회장(여): 김미정(엘리사벳)
 총무분과: 최경용(안셀모)
 재경분과: 박종수(요한)/ 김지현(안젤라)
 전례분과: 정옥숙(임마누엘라)/ 옥영애(크리스티나)
 임순복(미카엘라)
 사회복지분과: 김영희(모니카)/ 김영숙(엔나타)
 복음화분과: 이승오(가브리엘)/ 손주용(엘리사벳)/
 윤미지(누갈다)
 청소년분과: 신요셉(요셉)/ 이정철(스테파노)/
 손영선(헬레나)
 구역분과: 박선옥(요세파)/ 홍도심(아네스)
 시설분과: 신이식(바오로)/ 오병호(안티모)
 홍보분과: 이수환(마르첼로)/ 안승주(요한)

복자 신석복 마르코 치명 기념 도보순례

올해로 158주기를 맞은 신석복 마르코 순교자의 순교를 기념하여, 순교자가 압송되었던 길을 걸으며 신앙인의 사명감을 키우고, 음악을 통한 찬양 묵상으로 사순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신석복 마르코 치명 기념 도보 순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3월 23일(토) 11:00 출발
- 장소: 명례성지에서 외산 방향 도보순례 (왕복 8Km)
- 문의: 명례성지 사무실 055·391·1205
- ▶ 점심으로 김밥과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식사 준비 관계로 참여 인원을 3월 20일(수)까지 성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 간	내 용
10:50~11:00	명례성지 집결 및 접수
11:00~13:30	도보순례(식사 및 휴식)
14:00~14:30	명례성지 야외 십자가의 길
14:30~15:30	하.사.품 찬양 음악회
16:00~	주일미사



제18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 마 감: 9월 30일(월)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원고는 워드로 A4 용지에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할 것





온 피조물에 마땅한 자리를 부여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정향된 인간의 말

조우현 십자가의 요한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첫 순교자 스테파노는 성조들, 모세, 다윗, 예언자들로부터 우리 주님께 이르는 구원 역사를 풀이한 뒤,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을 증언합니다(사도 7,2-56). 이 증언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살의로 귀결되는 격분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였습니까?

태초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당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힘은 ‘분리, 구분’, ‘경계 지음으로써 자리를 부여함’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가르시는 분. 물과 땅 사이의 경계를 세우시는 분. 낮과 밤, 계절들의 경계를 부여하시는 창조주 하느님. 그렇게 시공간을 품은 우주에 모든 생물 고유의 자리(새에게 하늘, 물고기에게 물, 들짐승에게 땅)가 세워집니다. 식물이 작은 짐승의 먹이가 되고, 작은 짐승은 큰 짐승의 먹이가 되듯, 온 피조물의 탄생은 항상 자기를 초월하는 우주적 질서에 죽음으로 귀결되지만, 그마저 숭고하며 거룩합니다.

이런 원초적 질서 가운데 우리 인간이 부여받은 자리는 하느님을 닮아 하느님을 가리키는 이, 곧 하느님의 모상입니다(창세 1,26-28).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비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말을 통해 실현됩니다. 당신을 닮아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인간은 온 피조물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경계를 세우고 고유의 자리가 있게 합니다(창세 2,19-20).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말 역시 경계와 자리를 표현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친한 친구에게 별명, 또 하나의 이름을 부여하는 일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친구를 표현하는 일이고 내 나름의 기준으로 그 친구에게 자리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한편, 구원 역사 안에서 우리 인간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을 모방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그 말씀과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존재를 제 자리에 배치하시는 하느님, 응당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없어야 할 것들은 그저 없게 하시는 당신의 말씀과는 다르게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인’ 자리 배치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기 자리 배치’에 본능적으로 힘쓰는 데 비해, 다른 존재의 자리를 배치함에 있어서는 무감각하거나 잔인할 정도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 구도에서 스테파노가 순교를 당한 이유가 뚜렷해집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그의 증언은 실로 그 누구의 말과도 다르게 하느님의 말씀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하느님의 자리를 명시함으로써 온 피조물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리 배치를 수행하는 인간들은 자기들의 말과 너무나도 달랐던 스테파노의 말을 끝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싶었던 자리와 하느님께서 부여하시는 자리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에 대한 욕망의 결과가 곧 스테파노의 순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은 어떤 자리 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온 피조물이 제 자리를 찾아갈 때 하느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가 바로 서고 생명과 축복이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테파노의 말은 자기를 위한 자리 배치이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에 맞닿은 거룩한 말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배치함은 결국 다른 이들의 자리를 옳게 배치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순교자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의 말이 온 피조물에게 마땅한 자리를 부여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을 닮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재상 마티아 신부 作

섬기다, 함께하다

‘같이의 가치’. 어느 광고 문구입니다.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성모님이 함께 걸으시고, 그분을 섬기는 이들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동행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요한 12,26) 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당신께로 초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실 때 인간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계약 당사자로 삼으신 것처럼(창세 9,12-17 참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같이’, ‘함께’ 가치로운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모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꽃 앞에서 설교하며 ‘꽃이 마치 이성을 지닌 듯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였듯이(『찬미받으소서』, 11항.) 우리도 모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생태적 삶의 모범,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교회 안팎에서 생태를 이야기하면서 늘 모범이 되는 이로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심지어 생태적 위기의 근원 중 하나로 그리스도교를 비판했던 린 화이트 Jr.조차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태 위기 시대의 대안 인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 교황 교서를 통해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일하는 이들의 천상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생태적 삶의 모범으로 언급할까요?

린 화이트 Jr.의 경우는 그의 논문에서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그의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가 프란치스코를 생태론적 모범으로 언급한 이유는 성 프란치스코가 자연에 대한,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그는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살았던 신비주의자이자 순례자”(『찬미받으소서』, 10항)로 성 프란치스코를 소개하며, 그가 “자연보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 사회적 헌신, 내적 평화가 어떠한 불가분의 유대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그리스도교적 통합생태론의 모범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생태적 위기나 기후 변화의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기에,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생태적인 삶을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였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선을 체험하고 관상하며 찬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프란치스코 성인을 교회 안팎에서 생태적 삶의 모범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현대 사회에 종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인류 공동체에 이바지하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생태적 위기의 시대에 가톨릭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를 성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의 찬가” 혹은 “태양의 찬가”(이하 태양의 찬가)의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인용된 이 구절,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라는 구절에서 성 프란치스코는 모든 선과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께 속하며, 당신께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찬미받으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인식은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기본 공식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존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프란치스코가 가진 세계관이자 관계 맺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성 보나벤투라의 전기 내용, “그는 만물의 공통 원천에 관한 성찰로 더 큰 경외심에 가득 차 아무리 작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곤 하였습니다.”를 인용하시며 재확인하십니다.([찬미받으소서], 10항) 프란치스코가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을 ‘형제’와 ‘자매’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공통 원천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또 다른 전기 작가인 첼라노의 토마스는 “피조물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는 그것을 창조주와 관련시켰다. 그는 주님의 손에서 빚어진 모든 작품 안에서 즐거워하였고, 유쾌한 사물들의 배후의 뜻을 살핌으로써 그 사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성과 원인을 보았다.”(2첼라노 165)라고 전하는데, 이는 프란치스코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에 대한 호의와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주의’ 안에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태양의 찬가’는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창조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피조물을 바라봅니다. 그에게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은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의존적이며 서로를 존재하게 해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소유이기에 하느님께 찬미를 돌려드려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물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이해는 자연중심적이지도, 인간중심적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이해하였기에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을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형제적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선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생태 위기를 원인이 되는 왜곡된 인간중심주의와 과학기술 지배 패러다임은 자연은 물론 인간마저 그 내재적 가치를 무시한 채 도구화하고 착취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성 프란치스코를 생태론의 모범으로 거론한다는 것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창조 세계의 한 구성원인 인간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상호 관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 안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던지는 의미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안에서 창조 세계와 그 근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적 회개’라는 점입니다. 결국 신앙과 생태적 삶은 별개의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원칙이며, 생태적 회개가 없이는 참된 회개는 없으며, 참된 신앙은 없다는 점입니다.

작은형제회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

샌디에고 *Franciscan School of Theology* 대학원, *Master of Arts*

『프란치스코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개 고찰』

탄소 발자국^{2040*}을 줄입시다!

*글자체: 빙하체, '노타입' 개발. '글자 축'을 활용해 북극해 빙하가 녹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주 빙하량연도는 2040년입니다.

실천사항 5 고쳐쓰기_Repur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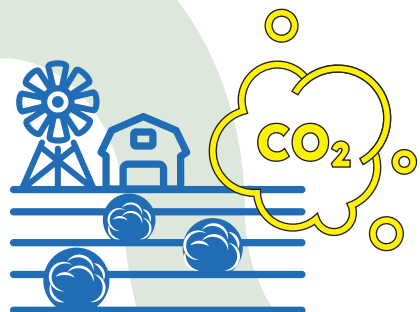
'의류산업'의 불편한 진실

옷이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KBS 환경스페셜
오늘 당신이 버린 옷, 어디로 갔을까?
[2022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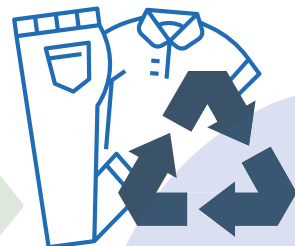
대부분 재활용 되지 않음
매년 발생하는 9,200만톤의 의류 폐기물 중,
옷으로 재활용 되는 것은 **1%**(87% 매립)



면화 재배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및 탄소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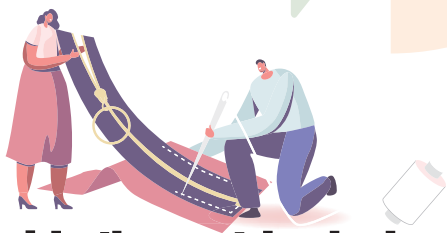
티셔츠 1개 생산
약 **2,700리터** 물 소비
(UN유럽경제위원회, 2018)
=한 사람이 **2년 반**동안
마시는 물의 양



재활용

다운사이클링(downcycling)됨

다운사이클링 제품(카펫, 단열재 등)은 단계가 내려갈수록
품질이 낮아지며 2-3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폐기 처리됨
또는 의류 폐기물 추출 실로 만든 의류 (단점: 비쌈)



함께! 고쳐 입어요

1. 옷이 헤어져도 버리기 않기
- 헤어진 팔꿈치, 무릎 등에 천을 덧대어 입기
2. 지겨워진 옷, 소품을 활용하기
- 와펜, 패치 등을 부착하여 포인트 주기
3. 작아진 옷 활용하기
- 아이옷 또는 반려동물 옷으로 수선하기
4. 늘어난 티셔츠로 패브릭안(실) 만들기
- 티셔츠로 패브릭안(실)을 만들어 러그, 쿠션, 인형 등 뜨개질로 만들 수 있는 소품 만들기

참고하세요!
업사이클링 DIY | 안 입은 티셔츠로 패브릭안 만들기
[YOUTUBE 채널: 꼬끼리 별꽃]



함께! 가요,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를
소개합니다 :)